

# 住居環境의 空間的 特性에 關한 研究

— 農·漁村 住居空間의 變容을 中心으로 —

## A Study on the Spatial Peculiar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 Centering around with the changes of the space of housing in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s —

梁 澤 訓\*  
Yang, Taek Hoon

---

### Abstract

In view of the results that the spatial peculiar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been analys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live on the change and use of the space of housing in the village of Bongsung, which is a traditional farming village of Cheju Island, and in the village of Hamo, which is a traditional fishing village of Cheju Island, a traditional constitution of space strongly remains in the village of Bongsung whose family composition has been reductionized and implified, on the other side a tendency of extension or remodelling has been strongly appeared as well as a plot planning or a loose form has been appeared in the village of Hamo whose family composition has been simplified and diversified and whose style of living has been also diversified, so the traditional style which the yard has been surrounded with a stone wall has not remained.

In the generation of 1970, a tendency to maintain the traditional living style, to simply change for application, or to change for holding fast to the tradition was appeared, and the space of housing has been changed for the advanced modernization of life pattern since the generation of 1980. However, the traditional custom of life is continued.

---

### I. 序 論

주택은 人間의 기본적 要求중의 하나로서 인간

생활이 변화, 발전하면서 그 形態와 意味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社會, 文化, 經濟적으로 복잡한 環境속에서 주택은 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더욱 분화되어 發展하고 있다. 그러나 傳統社會가 해체되면서 문화적

---

\* 正會員, 漢陽大 大學院 博士過程

위기를 겪은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주택의 存在樣式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혼란을 더욱 야기시키면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生活空間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제주 역시 60年代 이후 정부의 農村近代化政策으로 주택의 형태면에서는 다양한 變化를 보였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生活空間으로서 생활양식이 내재된 住居空間構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갈등과 모순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생활의 合理化라는 명문으로서 住生活의 어색한 적응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住居空間 및 住生活에 대한 분석이 要求되어지며 이에 대한 분석은 곧 주거자의 屬性에 따른 그들의 生活와 要求에 부응하는 住居空間으로서 합당한가를 判斷하는 것이 될 것이다.

## II. 研究의 概要

### 1. 調査의 概要

본 연구는 조사지역의 社會的 變化를 전체로 주거공간에 대한 변용의 特性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반응으로서 住生活의 變化를 분석하여 향후 제주도민의 주거계획시 基礎資料로 활용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範圍는 제주도 鳳城, 下狍마을로 제한하였다. 豫備調査는 1988년 5월부터 본 조사 직전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은 본 조사를 위한 마을 選定등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및 調査民家에 대한 성격과약당이다. 본 조사는 日本과 韓國 두나라 주거환경 연구팀<sup>1)</sup>의 合同으로 이루어졌으며 4명이 1조가 되어 4개조로 편성하여 調査하였다. 특히 현지 민박등을 통하여 그 調査地域의 생활상을 파악하려고 努力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88년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 農村 鳳城마을 14세대와 어촌 下狍마을 13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내용은 두지역 모두 대지내의

住居空間의 실측과 그 利用 및 그것에 근거한 變化 내용등에 대한 住居樣式 조사를 비롯하여 생업 형태와 생산력, 일일생활, 시간조사, 마을의 공동 생활의 실태 및 타출자를 포함한 가족관계 조사 등이다.

### 2. 調査地域 概觀

농촌인 鳳城마을은 오래된 傳統民家가 남아있는 村落으로서 제주도-노형을 경유하면 25km지점에 위치하고, 제주도-애월을 경유하면 28km 떨어진 해발 80-90m의 고지에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로서 143m의 어도봉을 中心으로 하여 광활한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 마을은 6개의 동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調査를 행한곳은 중화동과 신명동이다. 이 마을의 설촌은 약 350년 전에 문, 현, 강씨 일족에 의해 어도봉을 中心으로 부락이 形成되었으며 마을 명칭을 어도라고 불렀으나 現在는 鳳城리라 부르고 있으며 강씨일족이 가장 많고 마을농지는 넓고 경지와 목초지의 윤작에 의한 축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下狍마을은 제주도 남서부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골라 형성된 漁村으로서 통과 교통로와 거기에서 해안까지 연장되는 길을 따라 마을이 形成되고 있다. 이 마을을 中心으로 동쪽에는 중문천과 천재연폭포가 있고, 서북쪽에는 안덕계곡이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근교에는 아름다운 해안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變化있는 지형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住民의 대부분은 반농반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漁業을 전업으로 하는 집은 調査家屋 13세대중 1세대에 불과하며, 한 가정이 소유하는 어선의 規模는 2-3톤이지만 촌락에 있는 항구가 좁고 간조시에는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촌락의 서쪽에 位置하는 옆마을 항구에 어류하고 있다. 또한 女性의 대부분은 해녀일을 하고 있고 한 달에 15일 정도 잠수질을 하며 주된 어획은 조개류와 해초이고, 주요 農作物은 보리, 굴, 바나나, 콩 등이다.

1) 漢陽大學校 建築工學科 朴勇煥 教授研究室 및 日本 芝浦工業大學 建築工學科 畑聰一教授 研究室

3. 住居 및 家族關係

제주도 住居는 생계의 단위를 동별로 나누는 構成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본토의 儒敎文化를 본뜻 안거리, 사랑채의 構成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住居의 고유한 住居方式이 오늘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조사대상 각각의 家族, 生業, 生活를 통해 파악해보면 ① 전통적인 空間構成이 강하게 남아있는 鳳城마을의 가족구성은 현저하게 單純化, 縮小化 되어가고 있는 반면, 增·改築을 통하여 狹小지가 눈에 띄는 下狍마을의 가족구성은 單純化 경향을 띄면서도 다양하다. ② 순수농촌으로 생계를 꾸리는 鳳城마을에 비해 어촌인 下狍마을에서는 農業, 漁業, 海女の 잠수작업등 생업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특히 남해안은 氣候가 온난하여 열대과수의 온실재배가 가능하며 生業은 이들 다양함 속에서 선택하고 있다. ③ 두마을 모두 마을내에서 結婚하는 예가 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을교제는 한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同居시키고 친척은 밖거리에 살게 하는 등 다양한 전개가 인정된다. ④ 下狍마을에서는 分家の 패턴이 다양하고 세대주가 아들의 결혼이나 손자의 성장을 기회로 隱居分家하는 예가 적지 않다. 분가하는 집은 대지내의 밖거리에 한하지 않고 마을의 친척등을 의지하여 넓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家族形態는 다양한 生業形態와 생활형태를 동반하여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다.

06	Cm <sub>2</sub>	53 4	2세대	1/3	2500평 과수, 보리	-	-
07	C <sub>5</sub>	88 2	단순세대	3/3	2500평 밭지	-	-
08	Ckji <sub>2</sub>	42 6	2세대	없음	4500평 과수, 보리	-	-
09	αB	55 2	2세대	1/1	3000평 보리	-	-
10	B	67 1	단신-여	4/4	1500평 보리(300)	-	-
11	C <sub>5</sub>	77 2	단순세대	7/7	1000평 소작	-	-
12	B	58 1	단신-여	1/1	2000평 콩, 보리	-	-
13	Bsa	50 3	2세대	2/4	800평 콩, 보리	-	-
14	Cfs <sub>2</sub>	54 5	2세대	2/5	3000평 과수, 보리	-	-
하예	Cm <sub>2</sub> S <sub>2</sub>	59 6	2세대	3/7	-	*	3톤어선 X
02	Csa	52 4	2세대	2/4	1000평 과수, 보리	**	2톤어선 O
03	B	64 1	단신-여	2/2	2700평 과수, 콩	-	O
04	Cfs <sub>2a</sub>	54 6	2세대	3/7	750평 과수, 콩	***	없음 O
05	Cfsak	50 6	2세대	3/7	2530평 과수, 보리	-	O
06	α <sub>2</sub> B	63 3	직계형	?	-	-	O
07	α <sub>3</sub> B	59 4	3세대	6/6	노동	-	O
08	βB	72 2	단신-여	1/1	-	-	X
09	Bm	57 2	2세대	3/4	500평 보리, 콩	***	1톤어선 X
10	αCi <sub>2</sub>	30 5	3세대	없음	300평 소작	**	어선 X
11	Cs	48 3	방계포함 한 2세대	3/4	2500평 보리, 콩	-	O
12	Cji	37 4	2세대	없음	600평 과수	***	7톤어선 O
13	B	73 1	단신-여	5/5	-	-	O

〈表 2-1〉 調査對象 世帶의 家族 및 生業

주거 번호	가 족 형 <sup>2)</sup>			생 업 형 <sup>3)</sup>			
	형 연령	가족수	가족유형	2세대 타출비	농지규모 주요작물	어업형태 이전소유 해녀	
봉성 01	Csaj	45 5	2세대	1/4	1000평 과수, 콩	-	-
02	C <sub>5</sub>	55 2	단순세대	4/4	2000평 콩, 보리	-	-
03	C <sub>5</sub>	72 2	단순세대	5/5	1000평 콩	-	-
04	Ba	50 2	2세대	6/7	600평 콩, 소작	-	-
05	C <sub>5</sub>	59 2	단순세대	4/4	3000평 과수, 보리	-	-

2) 가족형 기호는 다음과 같다.

주요세대-C : 부부 B:단신 C<sub>5</sub> : 노부부  
 종속세대-α : 직계가족 β : 방계가족  
 자녀세대-i : 7세이하 j : 10세이하  
 k : 13세이하 a : 16세이하  
 s : 19세이하 m : 20세이상 남자  
 f : 20세이상 여자

3) \* : 어업  
 \*\* : 주로농업+어업  
 \*\*\* : 주로어업+농업

### Ⅲ. 空間的 特性

#### 1. 傳統的 空間의 構成

##### 1) 配置와 外部空間의 구성

제주도의 傳統의인 민가의 배치형식은 앞마당을 中心으로 한 구심적 배치형과 別棟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배경에는 巫俗信仰과 風水地理 기후에 대처한 욕구, 이 섬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家族制度<sup>4)</sup> 등 여러가지 文化的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이 배치형식에서 생성된 外部空間은 집 밖에서부터 住宅內部的 사적공간쪽으로 그 공간 기능에 따른 轉移가 정연한 질서체계를 이루어서 '마을안길-올래<sup>5)</sup>-올래목<sup>6)</sup>-앞마당-안뒤<sup>7)</sup>'로 이동간에 완급과 폐쇄와 트임으로 空間體驗의 충실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住宅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의 리듬을 느낄 수가 있다. 리듬의 構成은 도입부, 전곡부, 발전부와 종결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입부는 가장 중요시 되는 空間으로 올래에 해당하며, 이것은 다시 물광돌<sup>8)</sup>이나 어귀돌<sup>9)</sup>에 의해 1차 암시를 받는 부분과 정낭<sup>10)</sup>에 의해 2차 암시를 받는 부분, 그리고 다리돌<sup>11)</sup>에 의해서 유

도되는 세 부분으로 構成되었다. 이곳은 꾸준한 암시에 의해 도입되면서도 길게 計劃되어 있어 지루한 느낌을 준다.

전곡부는 올래목에 해당하며, 이 곳은 올래의 方向을 바꿔줌과 동시에 지루하고 어두운 곳에서 전환하여 希望과 밝음을 주는 空間이다. 이곳이 바로 제주도의 傳統의인 民家の 공간 구성미에 있어 극치를 이룬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곳이다.

발전부는 잇돌<sup>12)</sup>에 의해 構成된 마당공간으로 전곡부에서 받은 希望과 기쁨이 여기서 증가하여 회열과 환희로 發展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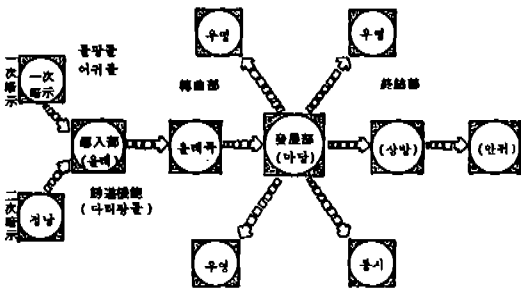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濟州民家の 傳統의인 棟의 배치와 外部空間의 구성은 기능적 要求에 대하여 독특한 공간의 질서-올래에서는 꾸준한 암시에 의한 지루함, 올래목에서는 희망과 밝음을, 마당에서는 회열과 환희를, 종결부인 住宅의 내부 및 안뒤에서는 안정과 휴식으로 變化 發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공간은 지루함-변전-기쁨-안정-휴식등의 본질로 리듬과 연속성으로 대응하면서 체계적인 外部空間의 특징을 형성하고 있으며, 물광돌로 시작하여 민가의 입구를 암시하는 I,L,S형의 여러가지 形態를 하고 있는 올래, 즉 주거내부로 유도하는 이 공간은 폭과 길이가 대략 2.1-3.0m, 9.0-15.0m 정도로서 올래의 형상은 진입시 시선에 의하여 住居空間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生活空間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독특한 디자인상의 特徵과 함께 주거내부로 우리들의 의식을 가장 자연스럽게 유도해 준다. 또한 그것이 끝나는 부근에서 정낭은 마치 傳統空間의 대문처럼 공간과 공간과의 사이를 명확히 分節하고 連結 시킴으로써 공간구성상의 연속성을 분명히 해준다. 마당은 民家の 작업공간으로서 한여름이면 명석을 깔고 보리, 녹두등의 곡식을 말리고 있는 풍경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그것은 건조와 함께 태양열이 住居의 내부로 反射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 4) 부모의 세대는 안거리에서, 자녀의 세대는 밖거리에서 별도의 취사 및 경제를 영위하며 기거하는 제주특유의 주거형태.
- 5) 진입도로로서 주택에 출입하는 진입로
- 6) 올래는 곧지않고 끝부분이 반드시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을 올래목이라 한다. 이것은 올래에 들어온 사람에게 집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한다.
- 7) 안거리의 뒷마당으로서 장독대가 놓여있는 조용한 영역이다.
- 8) 올래 입구에 있는 디딤돌로서 주인이 말을 탈때 사용하는 돌이다.
- 9) 올래의 입구를 어귀라고 부르며, 그 양쪽에는 어귀돌이 있다.
- 10) 올래입구 부분에 주인의 재실 여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하고 가축(소나 말)의 출입을 막는 통나무
- 11) 비가 올때 신발에 흙이 묻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올래부터 마당까지 깔아진 평평한 돌.

- 12) 올래의 다리광돌에 이어 마당주변 사방의 돌레를 마당보다 6cm정도 높여 광돌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잇돌이라 한다.

한다. 상방<sup>13)</sup>에 오르면 겨우 한사람이 다닐 수 있는 좁은문이 열려 있고 마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리 넓지 않은 밝은 空間에 동백나무, 감나무, 유자나무, 대나무 등의 몇그루 심어져 있는 안뒤로 나갈 수가 있다. 마당을 지나는 동안의 눈부시던 시각이 상방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펼쳐지는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을 보는 듯한 안뒤로의 좁은 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한다. 안뒤는 바람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부터의 방해없이 孤獨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어떤 意味로서는 민가의 內, 外部 空間 중에서 가장 “숨겨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外部空間의 구성은 아래에서 상방 혹은 정지<sup>14)</sup>를 지나 안뒤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리듬은 우리들의 의식을 강요하는 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空間의 연속성은 民家の 소박한 住居의 生活의 단면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다.



〈그림 3-1〉 외부공간의 구성도

## 2) 內部空間 構成 및 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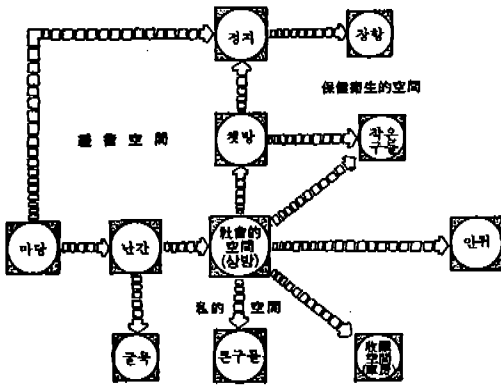
傳統的인 주거의 平面形態는 기본적으로 정지,

- 13)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거생활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휴식, 가족의 단란, 손님의 접대, 오락, 유희와 가사노동등 주택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곳.
- 14) 조리, 배선, 설거지 등을 하는데 흠바닥의 공간, 부뚜막은 온돌화구와는 따로 되어 있다.

상방, 구들<sup>15)</sup>, 고팡<sup>16)</sup>을 단위공간으로 구성되며 평면형은 3칸집이 가장 많다.

평면구성상의 각 空間에 대한 치수는 그 기준이나 개념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위는 없는 것으로 오히려 기둥과 기둥사이의 폭을 間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使用하는 목재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現實的인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平面은 겹집형식의 一字型 평면으로 꼭가가 없는 것이 特徵이다. 一般型인 3칸집에서 보면 상방을 가운데로 해서 앞은 앞문전을 통하여 안뒤로 트인다. 상방을 中心으로 한쪽은 구들과 고팡이고 다른 한쪽은 정지이다. 前後左右에 전부 뒷간이 있어 측면되는 방에 난방을 위한 굴목<sup>17)</sup>이 되고 굴목중단 상부는 방안에서 벽장으로 利用된다. 고팡과 정지는 뒷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에 비하여 넓다. 마당쪽의 전면되는 마당에서 건조중인 곡물의 임시 저장소로 쓰이고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 연결을 원활히 해주며 더욱이 室 空間인 방에 악천후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중간 공간으로서의 役割이 크다. 또한 주목할 것은 취사와 난방의 분리에서 얻은 合理的인 평면구성이 濟州民家의 두드러진 長點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內部空間의 구성은 사회적 공간인 상방을 중심으로 완충공간인 난간<sup>18)</sup>을 거쳐 마당과 연결되고 한편으로 私的 空間인 구들과 안뒤에 이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保健衛生 空間인 찻방<sup>19)</sup>과 정지, 굴목으로 연결된다.

- 15) 구들은 큰구들과 작은구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큰구들은 고팡과 인접해 있는 방으로서 굴목에 화구를 갖는 온돌방이며 일반적으로 다른방 보다 크다. 작은구들은 정지와 인접해 있는 방으로서 일반적으로 큰구들보다 작다.
- 16) 곡물과 부엌용품, 식기등을 주로 보관하는 수장 공간이다.
- 17) 온돌화구를 설치한 공간으로서 출입은 주로 난간으로 한다.
- 18) 상방과 구들의 외측에 마당으로 면하여 배치된 마루.
- 19) 정지나 마루사이에 위치한 마루방으로서 일반적으로 4칸집에서 작은방의 전면이나 후면에 위치한다.



〈그림 3-2〉 내부공간의 구성도

## 2. 配置形態 分析

조사지역내 민가의 일반적인 配置形態는 불규칙한 형태의 대지안에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 네거리집으로 構成되어<sup>20)</sup>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sup>21)</sup>, 헛간, 창고 등으로 호칭되는 여러 채의 건물들이 작업마당을 中心으로 복잡다양하게 配置되어 있으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一字型, 二字型, 卍字型, 卍字型 卍字型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안거리와 밖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공간이 비교적 規則性이 있지만 그 외의 건물들은 서로 혼합되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20) ○ 외거리집은 2칸막살이나 3, 4칸으로 구성되어 밖거리와 모거리가 없이 한채만 있는 것을 말한다.

○ 두거리집은 3, 4칸집을 안거리로 하고 이보다 작거나 같은 규모를 밖거리로 하여 마당을 中心으로 卍자형이나 卍자형으로 배치한 집이다.

○ 세거리집은 안·밖거리 배치에 모거리가 추가된 배치로서 모거리는 소규모 경영시설이 대부분이고 안거리에 따른 정지거리가 되기도 한다.

○ 네거리집은 3, 4칸을 안·밖거리로 삼아 마당을 中心으로 마주보게 一列로 배치하고 그것의 양쪽끝에 卍자형을 이루도록 테두리막과 수려간 등을 설치한 집을 말한다.

21) ○ 안거리 : 안채

○ 밖거리 : 바깥채

○ 모거리 : 안채, 바깥채에 대하여 모로 배치된 건물

있으며, 각 동 構成의 배치는 도로에 인접한 입구와의 관계, 일조조건, 대지형태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안채의 방위는 상기조건 외에 향, 좌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러한 決定要因들은 지형, 지세, 수문, 고도, 위도방위각, 시각방향 뿐만 아니라 제주특유의 바람과 풍수지리설 등에 의하여 많은 影響을 받아왔다.

조사결과 民家の 향은 주거공간의 안채의 경우 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안채의 向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이 가장 유리한 방향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가의 동 배치는 마당을 中心으로 안채와 바깥채가 평탄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배치되고 있어서 바닥의 높고 낮음으로 인한 空間의 강한 位階性은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통민가와 개량민가 모두 2棟 또는 3棟 구성이 많고 안채의 정면에 위치한 마당을 둘러싸는 配置形態인 卍字型과 卍字型이 대다수이며 건물대지가 협소할수록 단순한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에 의한 民家에의 進入方式은 안채의 정면을 향해 진입하는 방식과 안채의 부엌이 있는 측면을 향해 진입하는 방식, 그리고 기타 측면을 향해 진입하는 방식등 정면 이외의 다양한 進入方式을 취하고 있다. 또한 作業空間으로서의 마당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建物を 대지경계선에 가깝게 配置하고 있는데 특히 부속건물인 경우는 향을 중요시 여기기 보다는 作業條件에 유리하도록 거의 대지경계선에 붙여 배치하고 있다. 또한 1960年代 이후 改造, 改築등이 진행되어 대지내의 건폐율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별도의 창고건축 보다는 바깥채 또는 헛간 등의 空間을 창고화 하거나 改造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傳統住居는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의 配列方式에 따라 마당을 둘러싸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最近에는 밖거리를 없애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마당을 둘러싸는 方向으로만 발전하지 않으며 傳統의인 配置形態의 특징은 ①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의 배열을 취하며, 住居의 방향은 난간 있는 쪽을 정면







으로 한다. ② 마당을 둘러싸는 방법에 의하여 앞마당에 안거리만 있는 一字型과 안거리와 부속건물이 직각을 이루는 ㄱ字型, 안거리와 부속건물이 평행인 二字型,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등에 의해 구성되는 ㄷ字型과 口字型등 5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形態를 일람하면 〈그림 3-3〉과 같다.

또한 配置의 성격을 종합해보면 조사대상 27세대중 안거리의 향은 남향이 가장 많으며 鳳城마을에 비하여 下狍마을의 配置는 흐트러진 形態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많고 길의 構成에 따라서는 안거리의 향과 진입향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住居內의 진입을 위한 향은 우선 안거리의 配置方向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진입향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下狍마을의 경우 안길의 상부측 대지는 안길에서 직접 진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부측 대지는 안길에서 직접 진입하지 않고 올레등을 통하여 進入하므로서 東·西向으로 진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 민가의 配置는 안거리의 향이 우선이며 그 다음이 進入向이 결정되고 있다. 下狍마을이 주동의 향과 진입향이 다른 경우가 많은 이유는 어촌인 下狍마을이 鳳城마을에 비하여 經濟的으로 열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좁은대지로 된 것과 골목등이 형성되지 않은 이유로 住宅의 정방향을 향하여 진입을 취하는 것이 어려운 原因이라 생각된다.

### 3. 平面類型 分析

조사결과 안, 밖거리의 平面特徵을 유출하기 위하여 平面型을 옆에 따른 분류와 칸수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2列型 주거에 대해서는 ① 정지부분의 形態의 차 ② 골목의 유무 ③ 난간부분재료의 차이와 실내외의 구별에 의하여 〈그림 3-3〉과 같이 평면의 類型을 분류하여 分析하였다.

이 그림에 의하여 鳳城마을의 경우 작은방이 있는 3칸집(중마루형)<sup>22)</sup>이 大多數이고 下狍마을인

경우도 작은방이 있는 3,4칸형이 대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촌인 下狍마을을 住居가 鳳城마을에 비해 좁은 대지로의 구성과 60年代를 전후하여 부엌공간에 작은방을 만들어 부엌부분에 또 하나의 칸이 形成되면서 작은방이 있는 3칸집 또는 4칸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空間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오래된 사례에는 난간이 나무바닥으로 된 것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近代化의 영향으로 몰탈을 바른 것이나 난간이 실내화된 것이 增加하고 있는데 난간이 실내화되고 있는 住居의 대부분은 본래 고팡이어야 할 방을 개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난간의 실내화와 동시에 최근 보급되고 있는 연탄보일러에 의해 굴목의 必要性이 점점 희박하게 되어 굴목의 모습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비바람에 대비하는 풍채<sup>23)</sup>와 같은 傳統的 技術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平面類型들의 구조는 간단한 목조 축조이며 조적되고 있는 외부벽은 이 地方 특유의 강풍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靑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조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構成方法은 우선 분할축이 되는 간나누기 부분에 기둥을 세워 상량을 연결하고 상량에 단을 세워 모체를 지탱한 후 직목을 걸친다. 그리고 지붕은 초가이며 강풍에의 대처로서 낮고 둥그렇게 한 形態를 취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통나무를 옆으로 내려 놓았지만 지금은 망을 두르거나 고무로프를 使用하여 역새

들, 상방, 정지의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칸집에서 상방이 분할되어 나타난 형태이며 작은방이 없는 형과 작은방이 있는 형이 있고, 작은방이 있는 형은 다시 부엌간의 평면형태에 따라 一칸형, 중마루형, 부엌내형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중마루형은 一칸형 정지공간의 작은방 일부가 분할되어 상방과 작은구들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중마루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23) 풍채는 각목으로 뼈대를 잔위에 『새』를 얹어서 만든 것으로 비바람이 칠때 이것을 내려 비와 바람을 막고 또 햇빛이 비칠때는 이것을 올려 맹벌이 상방에 비추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22) 제주민가의 평면은 2칸막살이, 3칸집, 4칸집으로 나누며 3칸집이 가장 보편적이다. 3칸집은 구

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역세의 구입방법은 휴경지에 경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의 산기슭에서 베어오든가 하며 지붕은 2년에 한번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갈아 씌우며 傳統的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70年代를 전후하여 농촌개발사업 추진등으로 지붕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近代化 이후 초가지붕 보다는 스투트지붕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지붕재료의 차이는 配置形態에서는 거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지만 内部空間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난간이 완전히 내부공간으로 되어 외부와 내부와를 연결하는 완충적 공간으로서의 特徵이 사라진 것과 벽식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구부가 건물 전체에 분산하여 확보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濟州民家の 구성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發展하여 생활양식과 공간구성은 변화할 것이나 섬의 특성상 傳統的인 것은 사라지기 어려우며, 특히 마루를 중심으로 한 住居空間의 구성법은 그대로 받아 들여지리라 생각된다.

## IV. 生活像의 變化

### 1. 住空間의 變化

鳳城마을인 경우 調查對象 가옥의 대부분은 초가라고 불리는 역새 지붕이며 濟州特有의 석조의 벽으로 두르고 있다. 그리고 주거전면에 設置되어 있는 난간에 들어서면 전후면에 열린문을 가진 상방이 中央에 있고, 그 양쪽 옆에 구들이 있는데 정지와 근접하는 방을 작은구들, 곡물을 저장하는 고광과 근접한 방을 큰구들이라 한다. 또한 정지와 상방 사이가 휴민 경우 정지의 일부로서 使用되지만 바닥이 높게 된 찻방의 경우는 취사, 배선의 준비, 식사 등으로 使用되는 공간으로서 위치되어진다.

그리고 下院마을은 불럭조의 주거가 많아지고 있어서 초가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과 현존하는 초가도 改造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970年代

부터 밖거리나 창고의 增築을 포함한 대지내의 改造와 70年代 후반 5年 사이에 안거리의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改造內容을 살펴보면 ① 지붕을 초가에서 스투트로 개조 ② 난간의 실내화 ③ 온돌화구를 설치한 空間의 소멸과 구들의 擴大 ④ 고광의 개실화 ⑤ 찻방의 확립과 간막이 벽의 설치 ⑥ 난방방식의 變化에 따른 바닥 레벨의 저하를 들 수 있다.

또한 밖거리는 70年代 이후 좁은 대지내를 合理的으로 이용하기 위해 形成된 것으로서 空間構成은 보통 구들이 1실, 창고가 2실인 3칸構成을 이룬다. 그리고 구들 전면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가 室內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옥상을 만들고 여기에서 김치독이나 간장, 된장독을 나누거나 그렇지 않으면 農作物의 건조장으로 使用되고 있다.

### 2. 生活樣式的 變化

본토의 住居樣式的 特徵으로서 성별에 의한 공간분리를 들 수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러한 特徵이 있었다. 즉, 안거리에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령창이 상방에 있고 큰구들과 함께 家庭의 중심 = 남자의 장소라는 개념이 存在하였다. = 그리고 주거양식의 調查結果에 의하면 식사, 단란, 접객 등 계절에 의한 空間移動이 명확하여 여름은 상방, 겨울은 부부의 就寢室인 작은구들이 中心이 된다. 단, 단란은 T.V 위치와 關係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T.V 있는 작은구들과 상방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작은구들이 生活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정지에서의 난방의 용이로 燃料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구들은 제사때에 제단이 놓여지는 儀禮의 장소가 되는데 여기서 傳統的인 주거방식에서의 큰구들의 위치를 읽을 수 있지만 일상은 子女의 취침, 공부방으로서 使用되어 사적으로 從屬의인 공간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선조의 사진이 일상생활의 장소가 되는 작은구들에 장식되어 있는 것은 큰구들의 쇠퇴 意味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住居樣式的 큰 변화의 하나

로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고향이 개실화 한 것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近代化에 따른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 개실 중시의 경향등에 따라 고향의 存在意味가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안거리의 增·改築을 행하지 않는 주거는 두개의 경향이 보여지는데 이는 가족이 타출했기 때문에 改築할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안거리와 밖 거리에 상하 세대가 經濟的으로도 분리하여 居住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안·밖거리 住居方式은 제주도에서는 一般的인 주거방법이 되지만 下院마을의 경우 밖거리에는 주로 구들이 1실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세대의 가족은 비좁은 生活를 하게 된다. 그리고 下院마을의 住居는 가족의 확대와 近代化의 원인으로 개실의 확보 및 여닫이를 설치함에 따라 큰구들과 상방의 연속성이 가능하게 된 것등 실내공간을 충실히 한 傾向이 있으며, 본토에 있어 마루공간의 室內化는 주거의 폐쇄화와 연결되지만 下院마을의 住居는 난간의 건구가 없어짐에 따라 이전에 비해 開放的이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生活樣式은 근대화와 가족형의 성장, 확대에 따라 상방-작은구들-정지의 연결을 중시한 合理的인 주생활을 목표로 하여 왔지만 80年代에 들어 타출에 의해 생겨난 동거 가족원의 감소, 결혼가족, 단신거주의 증가등에 따라 住空間 및 住生活 변용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상의 特徵을 要約해보면 ①住生活이 큰구들에서 작은구들로 옮겨졌고, ② 고향의 기능이 없어져 창고나 개실로의 改造對象이 되었으며, ③ 生活水準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밖거리 新築 또는 안거리의 개실증가 및 면적의 증가, ④ 다른부지나 도시에의 이주로 인해 住居가 변화되는등 4가지의 傾向을 볼 수 있다.

## V. 外觀의 變化

오랫동안 면밀히 이어져 온 傳統民家를 개조 또는 개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外觀의 變化는

우선 60年代에 취사와 난방이 보급되면서 최초의 굴뚝이 발생하나 70年代의 개축세대에서는 큰구들의 난방은 이전의 굴뚝을 使用함으로써 작은구들과 큰구들의 난방방식이 分離되어 2개의 굴뚝이 나타나며 80年代에 건축되는 세대에서는 다시 난방방식의 統合으로 1개의 굴뚝이 나타난다. 또한 상방 전면에 유리창을 設置하면서 미바람 방지가었던 풍채가 소멸하나 傳統民家와 작은구들만을 확장한 民家에서는 아직도 풍채가 現存하고 있는 모습도 일부 볼 수 있다.

그리고 현관은 수평면보다 전면으로 돌출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傾向은 특히 70年代개축시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며 傳統空間에서 민가의 배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70年代 이후는 새로운 資料의 보급등으로 지형을 최대한 利用하면서 F.L과 치마높이를 높게 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지붕의 變化를 보면 傳統民家에서는 새로 만든 초가로서 굽은 동아줄로 고착시켰으며 이는 미바람에 견디어 내기 위하여 육지의 家屋보다 줄의 폭을 굵게하여 독특한 가옥의 경관을 이루고 있으나 1948年 이후 한때 일부 地域에서는 함석지붕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후 70年度를 전후하여 政府施策으로 새마을 운동 등이 적극 推進되면서 문화적 재료로서 스테트, 기와등이 보급되어 지붕개량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때의 지붕형태는 傳統的 민가형태인 초가에서 기존 지붕들을 이용하여 초가를 단지 스테트로 교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스테트 지붕은 중산간지역에서는 용수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용수취득이 용이한 해안부락에서는 새의 구입난 등으로 一般化 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스테트 利用은 경제적 부담을 加重시키지만 빗물의 취득방법, 강풍에 대한 고려, 고착성, 불연성, 내구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普遍化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의 形態는 본채와 바깥채등 주로 居住空間의 경우는 모임지붕 형태가 대부분이나 부속사, 창고 또는 소규모 거주용인 경우는 모임지

붕보다는 박공지붕 形態가 대부분이다.

또한, 傳統民家에서 각종의 문은 목조가 보편적이며 내실의 창문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폭이 넓은 목판을 利用하기 때문에 견고하고 폐쇄적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강풍방지의 目的뿐만 아니라 외부차단의 경계심리도 殘存해 있기 때문에 傳統的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70年代 이전까지만 하여도 창호에 있어서 構造形式이 부분적으로 전통고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80年代 이후 건축하는 세대에서는 창과 문의 분리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공간의 性格變化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I. 結 論

이상 濟州民家の 공간적 특성을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1) 70年代까지 전통적인 生活樣式의 유지 또는 적용을 위해 단순변용이나 고수지향적 변용이 행해지는 반면 80年代 이후로는 住生活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려는 近代化 지향적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주변 生活環境의 변화로 기존 空間을 확장시키거나 生活像의 요구에 따른 室을 확보하는 등 住居空間은 물론 住儀式의 變化를 초래하면서도 傳統的인 生活慣習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3) 도시적 生活樣式과 그 산물의 유입을 배경으로 용도변경, 증축 등의 형태변화가 進行되면서도 안거리의 平面構成은 중앙에 상방이 있는 3, 4칸 형이 一般的이다.
- 4) 지붕의 形態는 안채의 지붕인 경우 모입지붕 形態가 대부분이거나 부속사나 창고 또는 소규모 住居用인 경우는 박공지붕 形態가 일반적이다.
- 5) 80年代 이후 창과 문이 분리현상이 뚜렷해지며 近代的 건축재료의 손쉬운 購入으로 조적조 구조, 유리창과 문의 사용이 一般化 되어지고 있다.

## 參 考 文 獻

- 1) 濟州道,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查 報告書, 1973.
- 2) 濟州道, 濟州道誌, 1982.
- 3) 吳洪哲, 聚落地理學, 敎學研究社, 1989.
- 4) 洪慶姬, 村落地理學, 法文社, 1988.
- 5) 徐尙文, 建築·都市計劃造景을 위한 調查分析 方法, 庭于文化社, 1987.
- 6) 현용준, 제주도 巫俗研究, 集文堂, 1986.
- 7)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 綜合調查報告書, 제주도編, 1974.
- 8) 강영환, 韓國農村 住居의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3권 6호, 1987.
- 9) 엄인섭·김종인, 農村住宅의 2층화 傾向과 그 실상, 建築學會 論文集, 5권 1호, 1989.
- 10) 박경호 외, 강원도 傳統民家 및 聚落構造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1호, 1990.
- 11) 김일진·김명복, 慶北地方의 結집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5호, 1990.
- 12) 이용희 외, 安東文化圈의 住居空間 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7권 1호, 1991.
- 13) 한필원·이광로, 農村마을에서의 路의 形成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2호, 1990.
- 14) 이상정, 島嶼海岸地域 漁村 住居 形態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3권 4호, 1987.
- 15) 신재억 외, 傳統住居 建築의 近代性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4호, 1990.
- 16) 이연숙 외, 住居空間 내에서의 住生活 行爲 및 行爲間 葛藤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4호, 1990.
- 17) 이연숙 외, 住居空間 내에서의 住生活 行爲 및 行爲間 葛藤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3호, 1990.
- 18) 박현장 외, 安東文化圈의 마을 空間 構成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6권 6호, 1990.

- 19) 임창복, 韓國都市 單獨 住宅의 變遷에 關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4권 2호, 1984.
- 20) 이증우·이해성, 住生活 反應에 關한 住空間 變용에 關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4권 4호, 1988.
- 21) 안경은·박선희, 전북 완주군의 民家에 關한 調查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4권 4호, 1988.
- 22) 梁澤訓, 濟州島 民家の 住生活特性에 關한 建築計劃的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5권 4호, 1989.
- 23) 梁澤訓 外, 濟州島의 自然環境에 따른 民家の 配置特性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7권 4호, 1991.
- 24) 梁澤訓 外, 濟州民家の 住居環境의 特性에 關한 研究(1)(住居空間의 變용을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7권 5호, 1991.
- 25) 梁澤訓 外, 濟州民家の 住居環境의 特性에 關한 研究(2)(住生活의 變化를 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7권 6호, 1991.
- 26) 梁澤訓 外, 濟州島 住居環境에 關한 研究(오조리 마을의 空間的 特性을 중심으로), 대한조경학회 論文集, 19권 3호, 1991.

